

종합

# 1인 지방세 광주 63만원·전남 65만원 전국 최저 지방 재정난 이유 있었네

## 조세연구원 보고서

대기업 법인 본사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면서 광주·전남지역의 1인당 지방세 전국 최저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세 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연구위원

광주의 63만원과 전남의 65만원에 비해 최고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율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전남지역과 수도권의 1인당 지방세 격차가 이처럼 큰 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가 수도권에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총 17개의 지방세 세목 가운데 기업 법인(法人)이 부담하는 지방세 규모가 적지 않은데

만, 1인당 지방세가 다른 지역의 거의 2배에 가깝다는 것은 단지 소득 수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라며 "이는 수도권의 경우 주민이 내는 지방세 이외에 법인이 부담해주는 지방세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지방세 세율이 전국적으로 거의 같아 지역주민들의 세 부담은 거의 같은 반면, 지방세 과표는 지역생산이나 지역소득뿐만 아니라 법인의 활동이나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지역경제 성장이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계가 개편돼 지역생산과 지역소득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행기@redplane@kwangju.co.kr



## 박지사 가족 매몰지 점검

박종영(왼쪽에서 네번째) 전남지사가 23일 오후 나주시 공산면 남창리 조류인플루엔자(AI) 가족 매몰지를 방문, 철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으로 주민들의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시험탈락자 특채·행정동우회 보조금

## 행안부 감사... 전남 지자체 부당 행정 185건 적발

전남도와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한 행정행위로 정부합동감사가 부더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가 23일 공개한 전남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결과에 따르면 전남도 분청과 사업소, 도내 일선 지자체의 인사·예산·도시·건축·농림수산 분야에서 모두 185건에 이르는 부당한 행정행위가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환경·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지적 건수가 각각 22건과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19건), 소방화재(18건), 예산회계(17건), 도시토목(14건), 국토해양(12건), 사회복지(9건), 문화재(8건), 건축시설(7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목표시는 '해양음악분수 제작·설치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 계약이 아닌, 협상 계약으로 추진했다가 감사에 적발됐고 여수시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 내 축구장 조성 공사를 추진하면서 수의계약을 실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영암·함평·진도군의 경우 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원했다가 나란히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고흥군 등 4개 군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를 누락했다가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인사분야에서 전남도는 면허취소

로 직권면직 대상인 소방공무원을 정직 8월로 처분하고 결원이 없는 기관에 4급 직위 승진자를 발령해 시정과 주의 처분을 받았고 목포시와 무안군은 가능직 임용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을 특별임용했다가 적발됐다.

순천시와 면허정지(유주운전) 기간 중 뺑소니 사고를 낸 공무원을 조치하지 않았다가 주의 조치를 받았고 목포시 등 19개 시군은 농지전용 협의절차 이행도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행안부는 적발된 위법 부당 사례에 대해 담당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과 재정상 조치로서 관련 사업비를 회수·추징하거나 감액조치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대기업 많은 수도권의 절반 수준 '균형발전 위해 稅 체계 개편 필요'

원은 23일 '재정분권과 지역경제 성장의 수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지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기보다는 지역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변수'라고 밝히고 현재의 지방세 체계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는 만큼 지방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서울의 1인당 지방세는 127만원이었으며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104만원과 85만원으로,

다,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지역경제 활동이 수도권에서 훨씬 활발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기준 서울의 총 지방세는 12조9900억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전체 지방세 45조8400억원 가운데 가장 많은 28.34%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광주와 전남은 각각 9000억원(1.97%)와 1조2500억원(2.73%)에 그쳤다.

김 위원은 "서울의 1인당 소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기는 하지

▲지방세란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사업소득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된다.

## 이문세·빅뱅 부른 '붉은 노을'

### '붉은 노을' 교과서에 실렸다

"이문세와 빅뱅이 부른 '붉은 노을'을 들어 보고 시대의 차이에 따른 음악적 특징을 비교해 보자." 새학기를 맞아 전국 고교에 보급된 개정 음악교과서 가운데 도서출판 태성이 펴낸 '고등학교 음악' 6단원 '우리 시대의 음악'에 수록된 내용이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1학년도 1학기를 앞두고 전국 고교에 배포된 새 음악교과서 3종(2010년 7월 교과부 검정)에는 한창 활동 중인 인기 아이돌그룹 빅뱅까지 수록되는 등 요즘 청소년의 기호와 눈높이에 맞춰 대중 음악 비중이 부족해

나왔다.

태성출판사의 '우리 시대의 음악' 단원 중 '대중음악의 세계로'라는 소단원은 1920년대 대중가요의 탄생 기부터 2000년대 댄스음악과 아이돌 그룹 출연까지를 시대별로 훑었다.

윤성덕, 이미자, 산울림, 조용필을 언급한데 이어 '조금 더' 학습을 위해 이문세의 1988년 '붉은 노을'과 빅뱅이 이를 2008년에 리메이크한 '붉은 노을'을 비교해보라며 '붉은 노을'의 악보를 실었다. /연합뉴스

# 빛의 만평

- 김중두



이땅에 지진이 난것도 아니고 말야

## 노벨상 수상 외국인 등 '특별 귀화' 허용한다

노벨상을 비롯해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권위있는 상을 받았거나 국내외 우량 기업에서 3~5년 근무한 기업인이 한국 국적 취득을 희망할 경우 '우수인재'로 특별귀화 허가를 받거나 복수 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우수인재 평가·선정기준'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국적 취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외국 우수 인재의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새 국적법이 지난달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수인재 평가기준은 학술과 문화·예술, 체육, 경영, 첨단기술 분야 등에 따라 세분화했다. /연합뉴스

# 한의학 5년간 1조 투입

## 2015년까지 R&D 지원 등 육성 계획 확정

정부가 한의학 분야를 신규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3일 한의학 육성발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분야에 2015년까지 1조999억원의 투입해 현재 7조4000억원 선인 산업 규모를 10조원대로 늘리는 내용의 제2차 한의학 육성발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은 크게 한방 의료 서비스 선진화, 한약 품질관리 체계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한의학 산업 세계화 등 4개 분야 26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의학 역할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불임부부에 대한 한방 임상진료 지원 ▲노인·만성 질환에 대한 한방 선택 의원제 도입 검토 ▲한방병원 유류 병상의 노인 요양병상 활용 등이 추진된다.

또 한의학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통간계별 생산 및 제조 정보를 등록하고 추적하는 '한의학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고, 한약재 잔류 농약 시험법 보강과 증급속 허용기준 개선도 병행된다. /연합뉴스

## 과기위원장 김도연 교육수석 박범훈 보훈처장 박승춘



김도연 위원장 박범훈 수석 박승춘 처장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장에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내정했다. 또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승춘 전 9군단장, 청와대 교육과학수석에는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을 내정했다.

김 과학기술위원장 내정자(59)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공과대학장, 현 정부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을 지냈다. 박 보훈처장 내정자(64)는 강원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국방부 정보본부장과 9군단장

을 지낸 군인 출신이다. 현재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단국대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박 교육문화수석 내정자(63)는 경기 출신으로 중앙대 음악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총장과 서울국악예술고교 이사장을 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홈페이지는 기본 이제는 모바일 홍보시대!

모바일 홈, 스마트폰 어플 개발 (아이폰, 안드로이드)  
(주)쉐이커스가 스마트폰 어플로 여러분의 업체를 홍보해드립니다!

레스토랑	영화, 연극, 공연	일반 홍보용 어플 제작
골프 예약	카페	중고차판매

개발이력

모바일 게임 어플	다크 오브 나이트	홍보용 어플	소셜 커머스 '리빙톡키'
	스포츠 게임 한국		외 다수
	원 오브 드래곤		
	전상 액션		
	아쿠아 랜드		
	몬스터 체이스		
	외 다수		

문의 전화  
(주)쉐이커스 070-7581-7766  
010-3549-9358

건강명품 발목 펌프 운동봉

당신은 약을 전혀 먹지 않고 불노장생(무병장수)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노력만 하면 확실히 가능합니다.

1일 3,000회(소요시간 약 30분) = 10,000보 걷는 효과!

2011년 신제품 목침 겸용 발목펌프 운동봉이란?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cm 반원목침에 스프링과 소음진동방지가 장착되어 있어 취침 시는 목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기상하면 발목펌프 운동봉으로 평생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제30-0465075 발목펌프 운동기구

- 목재 운동봉 가격 : 39,000원 무료배송!!
- 목침 겸용 가격 : 45,000원 무료배송!!

제일건강 상담전화 TEL 062-672-2002 H.P 010-7510-2000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2층

온라인결제 \*광주은행 125-121-002455 \*농협 601154-52-335334 \*예금주:시영협

대상

2011년 2월 4일 SBS 주관 전국동안대회 대상

2011년 2월 24일 SBS 좋은아침 방송 이계남 신비 건강 재활원

심근경색 · 파킨슨병  
잠수병 · 혈관질환 · 허약체질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운동요법만으로 본인도 놀랄만큼 단 시일내 치유됨!!

062)951-5511 · 016-9578-7777

정품! 정량!! 난방유 SK삼보주유소

마일리지카드 발행 (인적사항 기재 없음)

명품 외부 세차! 깔끔 내부 세차!  
차량 무료점검 서비스 시행 Speed Mate와 업무제휴

난방유 할인판매

- ▶ OK로고 있는 전 카드 할인혜택
- ▶ 한드럼당 4천원~6천원 할인
- ▶ OK캐시백적립

내부세차합니다

산수오거리에서 자산(법원) 큰사거리 지하 200m우측

062-224-5189  
011-666-7899